

전남지역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활로 뚫는다

美 실리콘밸리서 밋서 판로 모색 6개 기업, 해외 투자자 네트워킹 투자유치·사업성 검증·방향성 확인 전남도, 지역기업 혁신 성장 지원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서밋'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를 모색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까지 3일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플러그 앤 플레이(PNP) 실리콘밸리 서밋에 지역 6개 기업과 함께 참가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은 플러그 앤 플레이가 양성한 세계 300개 이상 스타트업과 100여 개 파트너기업, 200여 명의 투자자, 대학, 정부 기관, 지자체 등 4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규모 네트워

킹 이벤트다.

이번 전남 기업 참가는 전남도가 지난 1월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2024)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남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14개사를 선정해 지난 5개월간 글로벌 멘토링, 영문 투자제안 코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10월 '데모데이 IR'을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에이비알, ㈜휴먼아이티솔루션, 오엠오, 좋은영농조합법인, ㈜슈니테크, ㈜해신, 6개사를 선정했다.

㈜에이비알은 중대형 배터리의 친환경 직접 재활용 기술을 활용한 양·음극재 추출 및 재제조 기업으로 그동안 6개 정부 지원 과제를 수행했으며, 지난 10월 중소기업부 팀스(TIPS)에도 선정됐다.

팁스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휴먼아이티솔루션은 체력 측정 기반 근력 향상, 다이어트, 재활 등 가상현실 방식의 효율적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유치(10억 원) 및 미국 원격진료 메디케어 보험사와 건강관리 앱 서비스 계약을 했다.

오엠오는 식용곤충 애벌레의 화학반응을 통해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을 받아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곤충 식품의 대중화와 다양한 식용 곤충 식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나주 배를 이용해 착즙주스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뉴욕 코스트코와 일본·베트남 마트에

입점했다. 착즙주스는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K'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친환경 수산기자재와 양식용 하이브리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슈니테크는 김 종자 배양을 위한 친환경 배양 필름을 제작 중이며 2024년 해수부 창업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최초 해상 및 육상 해삼 양식 기술을 보유한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 및 수출 기업인 ㈜해신은 올해 중국 수출 물량으로 2000톤을 확보한 상태로 해삼 관련 특허 6건을 등록된 유망 벤처기업이다.

서밋 첫날은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과 경쟁하며 투자자 및 플러그 앤 플레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어 기업별 홍보부스와 플러그 앤 플레이 기업 네트워킹 서비스 앱을

통해 네트워킹을 진행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헬스케어, 식음료 등 분야별 기업가와 혁신 리더 강연에 참여해 글로벌 기준과 트렌드를 학습하고 자신들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과 방향성을 확인했다.

행사 참여 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단계에 맞는 기업컨설팅을 처음으로 받고 세계적 투자자들 앞에서 피칭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만족하며 서밋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찬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서밋은 전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여정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으뜸기업 육성과 지역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신세계, 한파 대비 '방한슈즈' 선봬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패션과 추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한슈즈'를 선보인다. 패딩부츠 등 다양한 방한화를 통해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플레이 스팟(구 신관)의 '헌터(HUNTER·사진)'에서는 레인부츠부터 방한슈즈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와뱅크 우Wa한 영상 공모전' 성료

광주은행은 최근 창립기념일에 맞춰 '2024 광주와(Wa)뱅크 우Wa한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와(Wa)뱅크'는 놀라운 banking 서비스에 감탄하며, 고객들을 모이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금융업무를 넘어 다양한 생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브랜드 가치를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고객 대상 공모전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광주와(Wa)뱅크 브랜드 또는 광주은행 상품 및 서비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신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으며, 접수된 작품들은 내부 평가위원단 심사, 외부 전문 평가위원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1팀(200만원), 우수상 1팀(100만원), 장려상 10팀(각 30만원), 총 13팀이 1100만원의 상금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와뱅크의 신박한 6M 기능을 소개할게와!'가 차지했다. 와뱅크의 W

를 뒤집어 M으로 앱(APP) 기능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해당 작품에 "뒤집다"라는 테마를 정확한 단어로 서비스에 연결한 것이 인상적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광주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며, 현재 광주은행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있는 '와이즈한 요즘 금융, Wa뱅크' 영상광고는 3개월 만에 42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최권범 기자

제 1147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7 11 24 26 27 37	32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33억2342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5338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23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금호타이어, 북미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마제스티X' 등 3개 제품

금호타이어가 북미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마제스티X 솔루션 등 3개 제품이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굿 디자인 어워드'의 계보를 잇는 상으로 친환경 지속가능 디자인을 선정한다. 사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 센터가 주관한다.

금호타이어는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마제스티X 솔루션 △솔루션 TA21 △로드벤처 AT52 가 수상해 총 3개 제품이

선정됐다.

'마제스티X 솔루션'은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션'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으로 세단 및 쿠페, 크로스오버 차량에 장착된다. 승차감 및 핸들링 성능으로 마른 노면 외에도 젖은 노면, 눈길 노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타이어 홈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댄플 설계로 분산시키는 '패턴소음 저감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 패턴 설계 해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행성능 및 마모성능을 향상시켰다.

'솔루션 TA21'은 소형차와 준중형·중형차를 아우를 수 있도록 13인치부터 18인치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

며, 합리적인 가격과 최적의 균형 잡힌 성능을 만족하는 가성비 라인업 제품이다. 이 제품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계절 전용컴파운드를 적용하며 소음억제·분산 위한 최적의 블록 배열 설계로 우수한 승차감 및 저소음 성능을 구현했다.

'로드벤처 AT52'는 돌길, 진흙길 등 험한 북미의 오프로드 지형에 강한 성능을 갖춘 온오프로드 겸용 타이어로 픽업트럭, SUV, 지프 운전자들에게 인기있는 제품이다. 톱니와 같은 형상의 솔더 블록 디자인이 트레드에 적용돼 오프로드 지형에서 견인력을 향상시켰으며 5가지 길이의 피치 블록 배열로 일반 도로에서도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을 가능하게 했다. 박소영 기자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 성료

특수교육아동과 10년 인연 함께 합창, 감동의 피날레 장식

기아 광주 생기3실 임직원 봉사단은 최근 서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아동 대상 '제13회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참여했다.

24일 기아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교) 아이들의 즐거움 합창단의 졸업말인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은 특수아동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광주시교육청 문화예술통합체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날 공연은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과 팝페라그룹 리썸플로르, 클래식 연주팀 루체 앙상블 그리고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이 참여했으며 300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연주회 마지막 무대에서는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과 기아 임직원 봉사단, 전체출연진이 함께 합창하면서 연주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과 초특급 아이즐 합창단은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고, 정기연주회에도 참여해 특수 아동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왔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임직원과 아이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광주 임직원 봉사단은 올해 4월에도 전국 최초 발달장애청소년 야구단인 'ET 야구단' 발대식을 후원하고 지난 달에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적약자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경총-호남대,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협약

정주형 인재양성 등 협력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2일 হল리데 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대학교와 지역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 주력산업과 대학의 혁신성장, 산학협력,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

축하고 학생들의 지역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은 △지·산·학·연 협력사업 공동 개발 수행 및 노사 상생 공동연구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공동 기획·운영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교류 △정주형 인력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광주 대표 경영자단체인 광주경총과 협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해 우리 지역 좋은 기업에서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협력사업의 공동 개발과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호남대의 우수 인력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